

부산 연극을 우리 손으로 키웁시다 !

제 13 회

# 부산 연극제

## 문화회관 중강당

95년 4월 28일 ▶ 5월 7일

(1일 1회 공연, 오후 7시 30분 <공휴일, 일요일 : 5:00>)

♣ 시상식: 95. 5. 8(월) 오후 5시  
 ♣ 장소: 시민회관 소강당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예총부산지회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釜山日報社

국립부산교향악단 · 부산비행선공사  
 KBS 부산방송총국 · MBC 부산문화방송



하늘개인날 ..... 우리들의 광시곡 최송림/작 곽중필/연출

95년 5월 4, 5일

연출의 변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

한 조각 구름의 생성은 태어남이고  
한 조각 구름의 소멸은 죽음인가?  
질퍽한 회한의 삶이 먹구름에 갇혀 제대로  
보이지 않을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겠지.....  
그래서 한줄기 빗방울이 단비인양  
고마움을 느끼겠지.  
그래 걷어보자 잔뜩 찌뿌린 먹구름을  
그래 안아보자 파란만장한 질곡의 삶을  
내 가슴 어느 한 구석에 응어리진  
굳어서 말라버린 이또딸의 맑다 맑은 순결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존하는  
나 자신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이라는 근원적인 방법을 모색 하고자 나는 수많은  
번뇌와 고뇌, 고통에 휩싸였다.  
그러나 미로처럼 엮히고 설킨 뼈아픈  
민족의 아픔을 실타래를 풀듯이 이 작품을 통해  
풀어버리고 싶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인내와 미래의 희망을 갖고  
관객과 같이 끝까지 풀어보고 싶다.  
언제부턴가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난 그 후일담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 두  
이야기가 하나같이 우리 근세사의 뼈아픈 상처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 할 과제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열정과 의욕에 비해 얼마나 무대화 해낼지  
모르겠으나, 정면으로 맞부딪쳐보고 싶은 작품이다.  
부족하나마 새로운 출발점에서 끝까지 함께해준  
하늘개인날 진정한 벗들과 혹사당한 조연출께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이젠 맑은 하늘을 보겠지.....

작품 줄거리

민 족주의 사학자 한교수는 이산가족 찾기에서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  
이또딸은 고양이에게 쥐약을 먹고 무단 가출해  
버린다. 한교수는 영문을 몰라 고민한다. 더구나 아들  
세찬이는 정계 실력자 김의원의 손녀, 보라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다. 김의원은 한교수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학계 대표로 전국구 국회의원 공천까지  
제한한 처지다.

그러나 이또딸의 방에서 발견된 수첩  
'노르마(割當量)'를 통해 이또딸이 일제때  
종군위안부였다는 것과, 김의원이 바로 그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비밀이 밝혀진다. 세찬과 보라의  
약혼식장에서 두사람은 다시 운명적으로 만난 셈이다.

한교수는 세찬의 파혼을 결심하지만, 김의원은 온갖  
유혹으로 한교수의 마음을 돌려 놓으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친일 행각이 드러나 정치적으로 매장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아내 조선희도 김의원의 돈과 권력에  
매력을 느끼는 듯 불행한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느냐고 한교수를 설득한다. 세찬이와 보라 역시  
자기들의 사랑이 조상들 때문에 희생당할 수 없다고,  
숫제 성인으로서 독립을 선언한다.

하지만 한교수의 관심은 어머니뿐이다.

한교수는 다시 역사 속으로 뽕뽕 숨어버린 어머니를  
찾아내는 작업이야말로 자신의 남은 인생의 할당량,  
즉 노르마라고 말하며 이또딸의 행적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또딸은 일제때 김의원이 박은  
쇠말뚝을 뽑아 나타나서 김의원의 심장을 겨냥하지만,  
그것은 결국 세찬이의 손에 의해 지휘봉으로 바뀌어  
<우리들의 광시곡>을 연주하는 데 사용된다.

제 13 회 부산연극제

나오는 이



안고수 / 권철



조선외 / 이현주



김태산 / 이정허  
김달봉



이포말 / 김수현



안세잔 / 윤원우



김보락 / 최협숙



강돌자 / 박지선



어머니 / 배미선



일본군 / 김승운



일본군 / 신세명

도움이



연출 /곽중필



조연출 / 홍민아



무대미술 / 서광석



무대장치 / 김인덕



작곡 / 박철홍



분장 / 손서운



음악 / 성기조



조명 / 손원규



진행 / 홍정숙



섭외 / 최성락



진행 / 곽정림